

# 500만그루 나무 심어 미세먼지 잡는다

## 익산시, 기후변화 환경문제 대응 나무심기 사업 전개

익산시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전개한다.

12일 익산시는 시청 기자회견에서 김용주 안전환경국장 주재로 정례브리핑을 갖고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 익산 만들기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283억원을 투입, 총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시는 도심권 도시공원과 공공기관, 산업단지, 유희부지, 교통섬, 초·중·고교 등을 중심으로 나무를 식재,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한다.

올해 37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며 2020년 125만 그루, 2021년 125만 그루, 2022년 185만 그루, 2023년 28만 그루를 심는다.

또 푸른 익산 조성을 위해 나무 심기를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해당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운영한다.

이를 위해 늘푸른공민과와 산림과를 주관으로 녹색환경과, 도시전략사업과 등 8개 부서가 협업하고 시민단체인 (재)푸른익산기후기 운동본부와 연계해 나무 심기에 나선다. 특히 미세먼지 차단숲과 전라선 폐선부지의 대규모 도시숲 조성 등을 추진해 시민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또 시민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나무 나누어 주기 전개를 시민 참여 숲의 조성에 주력한다.

아울러 내교장소식지 등에 시민 수목가증 운동을 홍보해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종료되면 익산지역의 면적을 5만654ha로 계



12일 김용주 익산시 안전환경국 국장이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산했다. 2018년 미세먼지 기준 455에서 8%, 19.577%의 감소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안전환경국장은 "시민과 단체, 기업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도시 푸른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시,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사례 발굴 사업 추진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2019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중 정성평가 우수사례 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방안 토의 및

협업사항에 대한 논의 등 정성평가의 실적을 제고하고자 해당 부서를 방문했다. 부서별로 해당 지표의 평가기준 및 평가내용 등을 사전에 분석하고 우수사례집을 검토해 군산시에 맞는 우수사례를 연구로 올해 지자체 합동

평가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4일에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정성평가 지표 우수사례 기본교육에서 도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표를 관리할 예정이다.

김봉곤 기획예산과장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담당부서와의 지속적인 간담회와 보고회를 통해 올해 많은

우수사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안부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 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정책 등을 매년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 평가분야는 총 122개 지표이다.

## 익산시의회 어린이 청소년의회 체험교실 4월부터 운영

익산시의회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어린이·청소년의회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체험교실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체험교실은 학교별 1회 30명 이내로 연 10회를 운영된다. 이 교실에서는 의회역할·기능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영상 관람, 의회 홍보관, 본회의장, 상임위원실 견학, 본회 의사진행과정 체험, 3분 발언, 퀴즈풀이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난해 체험교실은 10개의 초·중교에서 254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고등학교까지 운영을 확대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29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익산시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 체험교실은 미래세대인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 체험을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의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군산시,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출시 본격화

군산시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서비스 제공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모바일 상품권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가맹점에서 QR코드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최근 가맹점 결제를 위한 QR코드 제작을 위해 휴 폐업, 이전 등 가맹점 정보 현황화를 위해 가맹점 일제정비를 3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

가맹점 정보 일제정비 후 4월 QR코

드를 제작하고, 5월~6월 가맹점별 어플 설치 및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 구축이 되면 시범운영을 거쳐 7월~8월 경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안전하고 간편하게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은행 환전의 번거로움도 해소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가맹점 관리가 보다 편리해진다.

또한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플랫폼

이 도입되면 출산장려금 등 각종 복지수당을 대상자에게 간편하게 전달할 수 있어 복지관련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각종 설문이나 여론조사 등에 필요한 모바일 투표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시는 사업의 확장성을 위해 모바일 쇼핑몰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타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는 등 상품권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 군산시, 시설거주 어르신 대상 심신안정 프로그램 운영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 군산시가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설입소 어르신 자아 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노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에게 개인 화분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3월 한 달 동안 노

인 요양시설 2곳에 시범 운영해 노인의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박성철 군산 개정꽃화원 대표의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효과가 있을 경우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요양시설 관계자는 "입소한 어르신이

스트레스와 자존감 상실로 힘들어 하는 중에 직접 꽃을 가꾸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어르신이 화초를 키워 나가며 건강하고 심신의 안정을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군산시가 서민금융 지역협의체를 구성했다.

## 전국 최초 윈스톱 서민금융서비스 제공 군산시, '서민금융 지역협의체' 구성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서민들이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곳만 방문해도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민금융 지역협의체'를 구성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금융권, 지원센터 등 8개 유관기관과 서민금융 지역협의체를 구축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향후 운영방안과 참여기관의 지원제도 공유 등 유관기관 한 곳만 방문해도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이로써 서민이 대출, 채무조정, 취업 등 개개인의 상황과 목

적에 따라 각각의 관련기관 방문을 해야 하는 불편이 한곳만 방문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 서민금융 지역협의체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다양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개소한 군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서민을 위한 맞춤형 윈스톱 금융·복지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월말 기준 총 232건(종합상담 66건, 미소금융 94건, 채무조정 70건 등)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 익산, 제2기 도시재생대학 시작

익산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재생대학(제2기)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재생대학은 오는 4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 역량 강화와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밑그림이 될 활성화계획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현장 중심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주민과 행정,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지역현장 곳곳을 누비며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해 직접 사업계획서까지 완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운영된다. 또 3인 3색 전문가 특강, 선진지 견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도시재생대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시재생지원센터(859-4207)로 문의하면 된다.

## 군산대 '천원의 밥상' 휴일 제외한 매일 아침 진행

군산대학교는 학생식당에서 조식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밥상' 사업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영양가 높은 양질의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오는 6월 18일까

지 1학기 수강기간 동안 휴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 진행된다.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이뤄지고, 1000원 식권은 자동판매기를 통해 구입하도록 했다. 5000원 상당의 샌드위치와 음료를 1000원에 제공한다.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